

'벤츠 천하'...수입차 시장 독주체제 굳혔다

단일 브랜드 유일 연간 7만대 돌파 눈 앞
E300 등 4종류 베스트셀링카 5위권 진입
올 수입차 판매량 24만255대...13% 증가
8개 브랜드 국내 판매대수 모두 1만대 넘어



베스트셀링카 4위 벤츠 GLC350e 4매틱.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올해 누적 판매량이 역대 처음으로 2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입차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연간 7만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8개 브랜드의 국내 판매대수가 모두 1만대를 넘어서는 등 수입차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올해 누적 판매량, 25만대 넘을 듯=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날까지 수입차의 국내 판매량은 24만25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2660대)보다 13.0% 늘었다.

지난 한 해 판매량 23만 3088대를 넘어선 것으로, 월 평균 등록대수(2만1841대)를 감안하면 올해 판매량은 25만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판매 부진에 고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수입차업계는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신차 출시 효과, 할인 프로모션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 2016년 22만 5279대, 지난해 23만3088대에 이어 올해 판매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도 올해 초 국내 수입차 판매량을 25만6000대로 예상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천하, 연간 7만대 판매 눈 앞=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입차 시장을 이끌며 독주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벤츠는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6만4325대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들여오는 방식이다 보니 수요에 따라 기민하게 물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확인됐다. 지난달(7208대) 판매량과 비슷한 규모라면 국내 수입차 최초로 연간 판매 7만대 고지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 판매량은 4만6994대(2015년)→5만6343대(2016년)→6만8861대(2017년)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차종별로도 벤츠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지난달에만 E300(1447대), CLS 400 d 4매틱(1429대), GLC 350 e 4매틱(1246대), E300 4매틱(919대) 등 4종류가 모두 베스트셀링카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E300의 경우 지난 10~11월 2개월 연속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르면서 벤츠가 세단 E클래스 기본형을 기존 'E200'에서 'E30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라인업 재편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개월 연속 베스트셀링카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벤츠 E300.

◇8개 브랜드, 1만대 판매 돌파=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8개 수입차 브랜드가 국내 판매량 1만대를 넘어섰다. 연간 1만대 판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입차 브랜드 인지도를 갖췄다는 의미로, 지난 1987년 수입차 전면 개방 이후 가장 많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지금까지는 7개 브랜드만 1만대를 넘겨 팔았다.

올들어 지난날까지 판매량이 1만대를 넘어선 브랜드는 벤츠(6만 4325대), BMW(4만7569대), 토요타(1만5196대), 폭스바겐(1만4282대), 아우디(1만1893대), 렉서스(1만1815대), 랜드로버(1만1000대), 포드(1만734대) 등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완성차업계 할인에 추가 할인...연말에 차 한번 사 볼까

기아차 모닝·K5·2018 K7 출고 고객 '라스트 찬스 이벤트'
현대차 승용·RV 차종 추가 1.5% 할인, 1.5% 저금리 적용
한국GM·쌍용차 등도 할인에 경품제공 등 고객 붙들기

국내 완성차업체가 소비자 발길을 붙이기 위한 할인 공세에 들어갔다.

연말은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좋은 시기다. 특히 올해는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로 앞두고 자동차 회사들이 금리·할인·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늘린다.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재고 차량에 대한 추가 할인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 마지막 한 달 총력전=기아차는 모닝과 K5, 2018 K7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조기구매 할인 ▲초저금리 할부 ▲출고사은품 제공 등 세 가지 혜택 중 한 가지를 제공하는 '2018 라스트 찬스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조기구매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출고일에 따라 모닝은 50만~70만원, K5와 K7(가솔린, 디젤)은 130만~150만원, K5와 K7(HEV, PHEV)은 70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초저금리 할부는 14일까지 출고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0.1% 저금리와 40만원 또는 0.1% 저금리에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승용차와 레저용차(RV) 전 차종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인화에 더해 추가 1.5% 할인, 1.5% 저금리를 적용하는 '트리플 기프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단, 9월 이전 생산분으로 제한하며 제네시스 브랜드와 전기차(EV), 넥쏘, 투싼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현대차는 또 승용·RV 전 차종을 조기에 출고하는 고객에게 출고 시기별로 10만원(3~11월)과 5만원(12~24일)을 각각 할인해준다. 제네시스 브랜드와 전기차, 넥쏘, 투싼, 그랜저하이브리드(HEV),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한국지엠(GM), 쌍용, 고객 붙들기 안간힘=쌍용차는 일부 모델에 한해 티볼리 브랜드 200만원, G4 렉스턴 360만원, 코란도 C 390만원, 코란도 투리스모 390만원을 최대로 할인해준다.

오는 14일까지 렉스턴 스포츠를 제외한 전 차종 구매 고객을 10만원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G4 렉스턴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특별할인을 제공하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이 G4 렉스턴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GM 쉐보레는 주력 차종을 역대 최



기아차 2018 K7 하이브리드



쌍용차 코란도 C

대 규모로 할인해주는 '메리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차종별로는 스파크 2019년형의 경우 최대 27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말리부 2018년형 560만원 ▲트랙스 2019년형(가솔린) 340만원 ▲임팔라 2018년형 630만

원 ▲카마로 2018년형 550만원 등이다.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스파크·트랙스·말리부·임팔라)를 운영하고 스파크는 월 1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10년 조장기 할부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마세라티, 타이어·와이퍼 등 무상점검 서비스

2018 서비스 윈터 캠페인

이탈리아 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고객들과 만나는 기회를 넓히며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마세라티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광주를 비롯, 전국 9개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18 서비스 윈터 캠페인'을 실시한다.

마세라티는 이번 캠페인 기간, 전 차종을 대상으로 엔진오일·트랜스미션 오일·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벨트류, 배터리 등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에 서비스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 이용하면 신속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마세라티는 캠페인 기간 유상 수리가 진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액세서리 및 머천다이즈

구입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에게는 마세라티 차량 방향제도 증정한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이번 윈터 캠페인은 세심한 차량 관리가 요구되는 겨울 시즌을 앞두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면서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전국 9개 마세라티 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세라티는 또 1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0개 전시장을 찾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포춘 쿠키를 나눠주고 메시지에 따라 뉴 기블리 시승권,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숙박권, 와인, 영화관람권 등을 증정한다.

한편, 마세라티는 지난 7일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고객 초청 와인 클래스 '라 돌체 비타(La Dolce Vita)' 행사를 개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윤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에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운 이광진 장석우 김동준 우정환 윤소이 김명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